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h2 style="margin: 0; color: red;">10월 11일(화) 석간(10.11.6시 이후 보도)</h2>			
배 포 일		2016.10.10. / (총10매)			
담당 부서	위기대응총괄과	과 장	홍 정 익	전 화	043-719-7190
		담 당 자	정 제 혁		043-719-7191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과 장	곽 진		043-719-7930
		담 당 자	노 유 미		043-719-7561

## 동남아 등 지카 발생국 방문 후 6개월간 피임 및 성전파 예방 권고

- 지카바이러스의 성전파 예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 연기, 방문 시에는 귀국 후 지카검사 권고
- 여행객은 지카 발생국가 사전확인, 여행 시 모기물림 주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및 임신시 신생아 소두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등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증상여부와 상관 없이 남녀 모두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을 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 최근 들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에 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다.
  -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최근 성접촉 감염 예방기간을 확대함
- 또한 이미 지카 발생국가를 여행한 사람도 이번 개정된 권고사항에 따라 6개월이 될 때까지 피임 및 콘돔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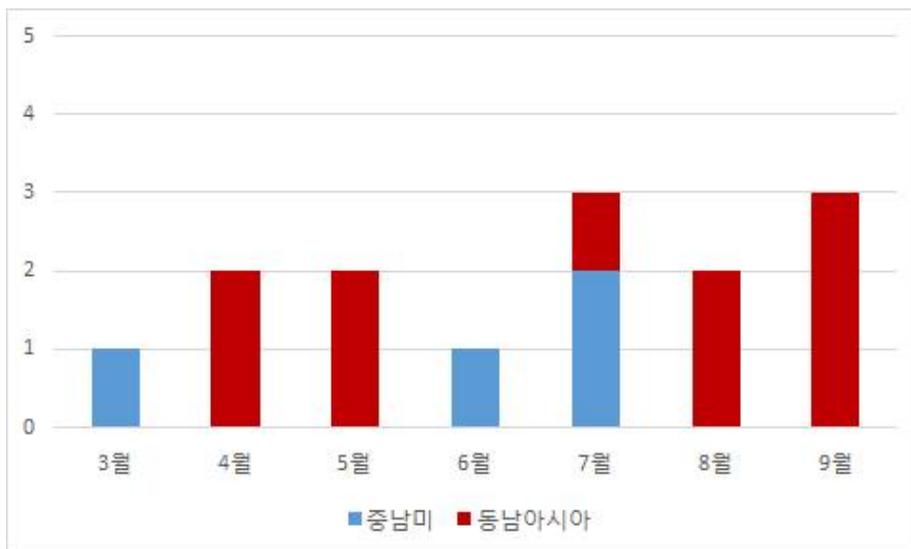
<성접촉을 통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현행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임여성: 귀국 후 2개월 동안 임신 연기</li> <li>- 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등이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 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li> <li>• 배우자 등이 임신상태가 아닌 경우 최소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li> </ul> </li> <li>* 단, 확진된 경우, 회복 후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b>남녀 모두, 증상에 상관없이 귀국 후 6개월</b> 동안 임신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li> <li>- 방문자의 배우자가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li> <li>- 확진환자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임신 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li> </ul>

\* 지카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경우(①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하거나 거주한 경우, ②지카바이러스 감염자 또는 유행지역 여행자나 거주자와 콘돔없이 성관계한 경우)는 동일한 예방수칙 적용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약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발생국가 여행 동안 모기물림에 주의하고, 지카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와 성접촉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되고, 태국에서 지카 감염 임신부에서 소두증 신생아 2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 아시아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 (<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6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 특히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배우자가 지카 발생국가를 방문했을 경우는 분만 시까지 성접촉을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여야 하며,
  - 지카 발생국가 방문 등 지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경우는 지카 검사를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 지카바이러스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사전 진찰 시 사전 확인 필요
  
-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14명의 지카 감염자 모두 건강하며, 유입 국가는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으며, 남자 11명, 여자 3명으로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현황  
2. 국외 환자 발생 현황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상별 행동수칙  
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

**붙임 1**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현황**

순번	성별	여행국(기간)	주증상	검사결과	확진일
#1	남	브라질 북동부 (’16.2.17~3.9)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3.22
#2	남	필리핀 보라카이 (’16.4.10~4.14)	발진 등(감기증상으로 내원)	혈액(-), 소변(+)	4.27
#3	남	필리핀 보라카이 (’16.4.10~4.14)	무증상	혈액(-), 소변(+)	4.29
#4	여	베트남 호치민 (’16.4.10~5.1)	발진, 관절통	혈액(+), 소변(+)	5. 7
#5	남	필리핀 루손섬 (’16.4.27~5.4)	발진, 관절통, 근육통	혈액(-), 소변(+)	5.11
#6	여	도미니카공화국 (’14.6~’16.6.18)	발진, 결막염, 관절통	혈액(-), 소변(+)	6.30
#7	남	과테말라 (’11.1~’16.7.4)	발진, 비화농성결막염	혈액(+), 소변(+)	7. 9
#8	남	푸에르토리코 (’16.6.26~7.1)	발진, 관절통	혈액(-), 소변(+)	7.13
#9	여	베트남 호치민 (7.11~7.15)	발진, 관절통, 근육통	혈액(+), 소변(+)	7.28
#10	남	태국 파타야 (7.31~8.8)	발진, 발열	혈액(+), 소변(-)	8.19
#11	남	베트남 호치민 (8.15~8.19)	발진, 근육통	혈액(+), 소변(+)	8.26
#12	남	필리핀 칼람바 (8.14~9.6)	발진, 근육통, 발열	혈액(+), 소변(+)	9.14
#13	남	필리핀 칼람바 (9.2~9.13)	발진	혈액(+), 소변(+)	9.17
#14	남	태국 방콕 (9.8~9.16)	발진, 근육통, 두통	혈액(-), 소변(+)	9.23

## 붙임 2 | 국외 환자 발생 현황

□ (발생국가 현황) 최근 발생국가 64개국, 과거발생 국가 10개국(10.7 기준)

지역	최근 발생국가(64개국)	과거 발생국가(10개국)
아시아 (10개국)	말레이시아, 몰디브,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남미 (47개국)	가이아나 공화국, 과들루프,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네덜란드령 보네르·세인트유스타티우스·사바, 네덜란드령 신트마르텐, 네덜란드령 아루바, 네덜란드령 퀴라소,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마르티니크, 멕시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하마,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루시아, <b>세인트키츠네비스 연방</b> ,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영국령 앵귤라, 영국령 케이맨제도, 영국령 터크스가이코스군도, 온두라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생마르탱, 프랑스령 생바르텔레미	칠레(이스터섬)
북미 (1개국)	미국(플로리다 주 Miami-Dade county (Miami city 포함)*, Broward county, Pinellas county, Palm Beach county)	-
오세아니아 (12개국)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미국령사모아, 사모아, 통가, 파푸아뉴기니,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피지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쿡제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아프리카 (4개국)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가봉, 세네갈

출처 : WHO(IHR) 등

○ (분류기준) 2007년 이후 환자가 발생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국가와 과거 발생국가로 분류

- 최근 발생국가 : 2015년 이후 모기에 의한 자생적 환자 발생 보고 국가
- 과거 발생국가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모기에 의한 자생적 환자 발생 보고 국가

붙임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상별 행동수칙

일반 국민 행동 수칙

2016.10.1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 여행할 경우



여행 전 준비사항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최신 발생국가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kr, m.cdc.go.kr)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에서 지속 업데이트 중
- 모기에방범을 여행전에 숙지해 주세요.
- 모기퇴치제품(모기 기피제) 및 밝은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준비해 주세요.
- 임신부는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 임신부 행동수칙 참조)



여행 중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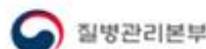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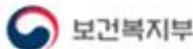
- <모기물림 예방>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 야외외출시 밝은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 야외 외출시 진한 향의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얇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모기 퇴치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 <성관계 등 통한 전파 예방>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해 주세요.



여행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주세요.  
\* 의심증상: 발진과 함께 관절통/관절염, 근육통, 눈충혈 중 1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귀국 후 추가 전파 예방>
- 귀국 후 1개월간은 현혈을 금지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 <성접촉에 의한 전파 예방을 위한 잠정적 권고안(2016.10.11)>
- 방문자는 남녀 모두, 증상에 상관없이 귀국 후 6개월 동안 임신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 방문자의 배우자가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기간 동안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확진환자는 회복후 6개월 동안 임신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 또는 보건소로 연락주세요



# 임신부 행동 수칙

2016.10.11.

##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 권고



**여행 전 준비사항**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최신 발생국가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kr)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에 지속 업데이트 중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 여행을 연기할 수 없을 경우 여행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시 일반적 주의사항을 상담받고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세요.
- 모기 퇴치 제품(모기 기피제) 및 밝은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준비해 주세요.



**여행 중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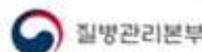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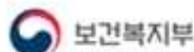
- | 모기물림 예방 |**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 야외 외출시 밝은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 야외 외출시 진한 향의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얹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 기타 모기 퇴치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 일반적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는 임신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전 주의사항 확인 필요



**여행 후 주의사항**

- | 성관계를 통한 전파 예방 |**
-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해 주세요.
-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주세요.
-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 의심증상: 발진과 함께 발열, 관절염, 근육통, 눈충혈, 두통 중 1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성접촉에 의한 전파 예방을 위한 잠정적 권고안 (2016.10.11)
    -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배우자와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 사용
  - 의심증상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의료기관 상담 후 검사가 가능합니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 또는 거주
    - 감염남성 또는 발생국가 방문 남성과 성접촉
    - 산전 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는 뇌 석회화증 의심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 또는 보건소로 연락주세요.



**붙임 4**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

Q)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걸린 남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면, 태아에게서 소두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지카바이러스 감염자와 성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특히 임신 초기) 경우 태아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력이 있는 사람은 귀국 후 6개월 동안 임신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을 권고하고, 만약 배우자 등이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여행자의 경우 임신 연기 및 금욕 또는 피임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었는데, 저(남성)는 3개월 전 브라질(발생국가) 여행을 다녀왔으며 임신 계획중입니다. 임신을 더 연기해야 하나요?

A) 변경된 행동수칙에 따라, 여행 후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도록 권고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염 후 6개월째 실시한 정액검사에서 지카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며,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관계를 통한 전파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행동수칙도 이를 반영하여, 임신 연기 및 금욕 또는 피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Q) 저(남성)는 약 4개월 전 동남아 지역 출장 후 2개월이 지나고 나서, 부인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http://www.cdc.go.kr), [m.cdc.go.kr](http://m.cdc.go.kr))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http://travelinfo.cdc.go.kr))에서 여행하신 국가가 발생국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가 발생국가 여행 또는 여행자와 콘돔없이 성접촉이 있었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 및 노출 4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주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도록 권고합니다.

Q) 임신을 위하여 불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발생국가를 여행했을 때, 언제까지 치료를 일시 중단해야 하나요?

A) 변경된 행동수칙에 따라, 태아로의 전파(수직 감염)를 가능한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간 임신을 연기하고,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권고합니다.

Q)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귀국했는데 발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환자 발생국가 여행자 중 귀국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눈충혈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 지카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발생국가 여행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될시, 증상과 상관없이 급여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병원에서 지카 검사가 시행 가능한지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혹시 감염되었을지 걱정이 되는데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문가에 따르면 증상이 없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신부의 경우 임신 중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다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지카감염증 관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생국가 여행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개월간은 헌혈을 금지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귀국 후 6개월 동안 임신연기,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A) 모기 노출을 최소화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기활동 시기에 야외 활동 시 모기기피제 사용, 긴소매, 긴바지 옷을 착용하고, 숙소는 방충망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충분한 휴식 등의 일반적인 치료법 말고, 지카바이러스를 이겨낼 별도의 치료법과 예방접종 백신이 있나요?

A)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대부분 회복되고,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열진통제 등의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없습니다.